

7월 24일

04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Scriptural Christianity

오늘의 회개

오늘 하루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오늘의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의 질문

참된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참된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됩니까?

오늘의 설교

1.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참된 기독교

참된 기독교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세운다고 해서 시작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동하고 환호를 한다고 해도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개인의 내적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각각 기록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은 2장과는 다르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가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내적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강조하셨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 내면에 임하시고 친히 그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롬 8:15).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이런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롬 5:1),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골 3:15)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맛볼 수 없었던 구주되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망 안에서 세상의 흉한 소식이나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이겨내고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빌 1:23).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2.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참된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져서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셨던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습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으로서 먼저 믿는 이들이 한결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으며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마 5:16)고 말씀 하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죽음에 누워 잠들어 있는 이들은 일어나라고 일깨웠으며(엡 5:14), 이미 깨어 믿음에 이른 이들은 계속적으로 끈기있게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히 12:14).

복음 전파는 반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죄와 쾌락의 위험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 알리면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핍박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더욱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셨으며 말에 버금가는 힘을 지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이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와 함께 이땅에 함께 퍼진 것도 있습니다. 밀과 함께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게 되었고 경건의 신비와 함께 죄악의 신비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마 16:18). 결국 약속하신 대로 참된 기독교는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벧전 1:10~11).

오늘의 묵상

1. 오늘의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2.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

.....

3. 내가 받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고 전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오늘의 적용

1. 개인적인 영역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

2. 공동체(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

.....

오늘의 기도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부터 참된 기독교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을 통하여 내 힘과 열심 그리고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받은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하여 마침내 이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